

제 107 회

#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

(문제지)

※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

급수	사범급	유형	A형	수험번호		-		-		-		
문항수	200	객	50	성명								
		주	150									
시험시간	120분											

## 수험생 유의 사항

-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.
- 답안지에 문제유형(A, B)를 <예시>와 같이 표기하십시오.
- 답안지에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.
-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주·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수정방법:
  -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.
  -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,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.
-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.
-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,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.
-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(객관식과 주관식 구분)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.
-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,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.
-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.
-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&lt;예시&gt;

문제유형	
A형	●
B형	○

■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.

공인민간자격관리 · 운영기관


**社團 漢字教育振興會**

韓國漢字實力評價院

# 제107회 한자실력급수 [ 사범급 ] 문제지

## 객관식 (1~50번)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?

1. [ 駝 ] ① 迨 ② 媽 ③ 朶 ④ 侘
2. [ 枸 ] ① 蓐 ② 僑 ③ 皴 ④ 賸
3. [ 攬 ] ① 焮 ② 隻 ③ 瞿 ④ 碣
4. [ 溱 ] ① 輳 ② 軫 ③ 蹲 ④ 喘
5. [ 翟 ] ① 頤 ② 倜 ③ 擲 ④ 汐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?

6. [ 砧 ] ① 琛 ② 覘 ③ 枕 ④ 忱
7. [ 莎 ] ① 蓑 ② 篩 ③ 梭 ④ 緦
8. [ 祁 ] ① 肌 ② 綺 ③ 祇 ④ 夔
9. [ 恙 ] ① 殤 ② 敷 ③ 痒 ④ 禳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?

10. [ 曩 ] ① 愨 ② 疇 ③ 涑 ④ 鐫
11. [ 賜 ] ① 賚 ② 愨 ③ 緡 ④ 敗
12. [ 靖 ] ① 悵 ② 惇 ③ 恬 ④ 恰
13. [ 呵 ] ① 諶 ② 謾 ③ 詡 ④ 譴

※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?

14. ① 事 ② 矛 ③ 予 ④ 了
15. ① 須 ② 頊 ③ 煩 ④ 頃

※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16. ① 漸漬 : 점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慵惰 : 용타  
③ 殮襲 : 엄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痔漏 : 치루
17. ① 緊紮 : 긴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杜鵑 : 두견  
③ 黴菌 : 휘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嗚咽 : 오열
18. ① 嗟歎 : 차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霍亂 : 과란  
③ 不屑 : 불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瀟灑 : 소세
19. ① 邈逸 : 둔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翠嵐 : 취남  
③ 汨沒 : 골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穢土 : 예토
20. ① 蛇蝎 : 사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啼哭 : 제곡  
③ 惻怛 : 측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薊丘 : 소구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?

21. 오늘부터 이틀간 장마가 [ 소강 상태 ]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.  
① 消康狀態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小降狀態  
③ 消降狀態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小康狀態
  22. 그녀의 매력은 초승달 같은 [ 아미 ]에 있다.  
① 蛾眉    ② 衙眉    ③ 雅眉    ④ 訝眉
  23. 그는 [ 황무지 ]를 개간하여 마침내 옥토로 만들었다.  
① 荒蕪地 ② 況茂地 ③ 荒茂地 ④ 況蕪地
  24. 아버님은 [ 뇌졸중 ]을 앓고 나신 후,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다.  
① 腦猝重 ② 腦卒重 ③ 腦卒中 ④ 腦猝中
  25. 그는 웃음소리가 [ 호탕 ]하다.  
① 皓宕    ② 豪宕    ③ 皓湯    ④ 豪湯
  26. 그는 속세를 벗어나 [ 유수 ]한 협곡 사이에 자리를 잡고 나물과 약초를 캐며 살아갔다.  
① 幽邃    ② 踰邃    ③ 誘邃    ④ 濡邃
  27. 총을 들고 [ 수류탄 ]을 찬 병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.  
① 手琉彈 ② 手劉彈 ③ 手榴彈 ④ 手留彈
- ※ [       ]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?
28. 그 청년은 용감한 시민으로 [       ]을/를 받게 되었다.  
① 怨慝    ② 謳歌    ③ 旱魃    ④ 褒彰
  29. 눈사태와 흑한을 견뎌 낼 [       ]한 체력이 없이는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할 수 없다.  
① 幫助    ② 強靱    ③ 無辜    ④ 嘶號
  30. 곤륜산의 선녀 서왕모가 한 무제에게 드린 신선한 복숭아를 [       ]라고 한다.  
① 行悖    ② 牡蠣    ③ 蟠桃    ④ 黔黎
  31. 동양 의학에서는 [       ] 반응을 하나의 호전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.  
① 瞑眩    ② 錠劑    ③ 嘖蹙    ④ 凶歉
  32. 처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요구가 [       ]하였다.  
① 滲透    ② 陂塘    ③ 弊邦    ④ 沸騰
  33. 방을 산뜻하게 [       ]했다.  
① 孔竅    ② 騙欺    ③ 塗褻    ④ 羹楪

34. 나인 이 씨는 임금의 [        ]이었지만 품성이 매우 방자하였다.

- ① 辛辣 ② 嬖寵 ③ 褐斑 ④ 凍瘡

※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?

35. 글씨 또는 기운 따위가 웅장하고 막힘이 없음.

- ① 氈笠 ② 殷賑 ③ 末梢 ④ 雄渾

36. 남의 마음을 끌어 자기편으로 만들.

- ① 風靡 ② 延攬 ③ 惆愴 ④ 撫恤

37.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.

- ① 吹噓 ② 贅言 ③ 剔抉 ④ 擲揄

38. 국경을 지키던 일. 또는 그런 병사.

- ① 漲溢 ② 竄入 ③ 禪榻 ④ 徭戍

39. 일의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냄.

- ① 朽滅 ② 彌縫 ③ 吩咐 ④ 拿捕

40. 나란히 서서 함께 가거나 옴. 행동을 같이함.

- ① 連袂 ② 籌板 ③ 犀角 ④ 槌擊

41.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.

- ① 鷲瓦 ② 頓挫 ③ 粉黛 ④ 棧閣

※ [        ]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?

42. [ 單牌轎軍 ]

- ① 예전에, 교대할 사람이 없이 단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가마를 메고 가는 가마꾼.  
 ②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바로 요점이나 본문제를 중심으로 말함.  
 ③ 매우 밀접하여 늘 함께 어울리는 사이.  
 ④ 바둑에서,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패.

43. [ 蜂蟻君臣 ]

- ① 태평의 길한 조짐을 이르는 말.  
 ② 신분 관계의 질서가 중요함을 이르는 말.  
 ③ 소홀히 한 작은 일이 큰 화를 불러옴을 이르는 말.  
 ④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.

44. [ 蜀犬吠日 ]

- ① 사람은 각기 그 상전을 위해 선악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한다는 말.  
 ② 남의 사주를 받고 꼬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.  
 ③ 식견이 좁은 사람이 현인의 언행을 의심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 
 ④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.

45. [ 一炊之夢 ]

- ① 낮잠 또는 좋은 꿈을 이르는 말.  
 ② 인생이 덧없고 영화도 부질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 
 ③ 젊은 여자가 홀로 쓸쓸히 자는 잠자리를 이르는 말.  
 ④ 근심 없이 편안히 지냄을 이르는 말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我國은 國小而民貧하니 今耕田<sup>㉠</sup>疾作하고 ①用其賢才하고 通商惠工하고 盡國中之利라도 猶患不足이요 又必通遠方之物而後<sup>㉡</sup>라야 貨財<sup>㉢</sup>殖焉이요 百用生焉이라 夫百車之載가 不及一船이요 陸行千里가 不如舟行萬里之爲<sup>㉣</sup>便利也라 故通商者는 又必以( ㉤ )路爲貴라 我國은 三面이 環海하니 西距登萊가 直線六百餘里며 南海之南은 則吳頭楚尾之相望也라

46. 문맥상 ㉠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원망하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근심하다  
 ③ 부지런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나쁘게

47. ㉠~㉣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㉠: 용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㉡: 세우다  
 ③ ㉢: 곧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㉣: 둘러싸다

48. ㉤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水      ② 陸      ③ 車      ④ 道

49. 이 글의 저자는?

- ① 朴趾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朴齊家  
 ③ 李瀾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李奎報

50. 이 글이 실린 책은?

- ① 熱河日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士小節  
 ③ 北學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欽欽新書

**주관식 I (주1~주100번)**

■ [주관식 I]의 답은 [OCR답안지]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.

- 주1. 摠 ( )
- 주2. 窟 ( )
- 주3. 鑊 ( )
- 주4. 颯 ( )
- 주5. 絢 ( )
- 주6. 怙 ( )
- 주7. 戇 ( )
- 주8. 睽 ( )
- 주9. 腕 ( )
- 주10. 颯 ( )
- 주11. 肇 ( )
- 주12. 輜 ( )
- 주13. 捻 ( )
- 주14. 你 ( )
- 주15. 侁 ( )
- 주16. 闡 ( )
- 주17. 校 ( )
- 주18. 迺 ( )
- 주19. 權 ( )
- 주20. 闖 ( )
- 주21. 逗 ( )
- 주22. 嫩 ( )

※ 한자의 부수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23. 嘗 ( )
- 주24. 瓣 ( )
- 주25. 巡 ( )
- 주26. 欽 ( )

※ 훈과 음에 맞는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27. 갓끈      핑 ( )
- 주28. 거를      려 ( )
- 주29. 여뀌      료 ( )
- 주30. 휘장      약 ( )
- 주31. 성가퀴    첩 ( )
- 주32. 웃을      치 ( )

- 주33. 바렐      퇴 ( )
- 주34. 이슬기운    해 ( )
- 주35. 발두둑      휴 ( )
- 주36. 기뻐할      흔 ( )

※ ○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쓰시오.

<보기>	聳	飭	淹	頹	湛	裘	窩	脩
------	---	---	---	---	---	---	---	---

- 주37. 膝○      ○窟      燕○      ( )
- 주38. ○懼      ○拔      ○動      ( )
- 주39. 脯○      ○竹      束○      ( )
- 주40. ○滯      ○泊      ○博      ( )

※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.

- 주41. 尿尿      ( )
- 주42. 勁悍      ( )
- 주43. 腥臭      ( )
- 주44. 春煦      ( )
- 주45. 肉髻      ( )
- 주46. 蠲滌      ( )
- 주47. 擅權      ( )
- 주48. 韜晦      ( )
- 주49. 舛訛      ( )
- 주50. 罄竭      ( )
- 주51. 芟除      ( )
- 주52. 掌拒      ( )
- 주53. 斜稜      ( )
- 주54. 摺帖      ( )
- 주55. 颯馳      ( )
- 주56. 苧麻      ( )

※ [    ]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.

- 주57. 법안 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심각한 [진통]이 예상된다. ( )
- 주58. 이 주사는 [진통] 효과가 있으니 곧 통증이 가라앉을 겁니다. ( )
- 주59. 아버지는 제사상 위에 [삽시]하시고 일어나서 절을 하셨다. ( )
- 주60. [삽시]라는 한자어보다는 '뚝은 감'이라는 표현이 이해하기가 쉽다. ( )

※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. (단,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)

- 주61. 마을 어귀의 돌탑이나 城幌堂은 祈福信仰이 반영된 것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2. 설날 아침 부엌에서는 歲燦을 準備하는 손길로 奔走했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3. 사랑하는 그녀와 結婚하여 團欄한 家庭을 꾸리고 싶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4. 韓國人은 懸筋과 끈기가 있는 民族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5. 아내는 商品 割引券을 節取線에 맞춰 잘랐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
※ 풀이에 맞게 [            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66. [봉수대]: 봉화를 올리던 독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7. [부로]: 사로잡은 적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8. [제대]: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관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9. [내추성]: 옷감에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성질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0. [거치]: 공채, 사채 따위의 상환 또는 지급을 일정 기간 하지 않는 일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1. [해장]: 젓갈이 삭아서 우려난 국물. 젓국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2. [장롱]: 옷 따위를 넣어 두는 장과 농을 아울러 이르는 말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3. [조예]: 학문이나 예술, 기술 따위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이르는 정도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4. [식이요법]: 섭취하는 음식물의 품질, 성분, 분량 등을 과학적으로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5. [초창기]: 어떤 사업을 일으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. (            )

※ 문장 속 [            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76. 오늘 [촬영]한 내용은 편집 후에 모레 방송될 예정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7. 그의 열성에 가득 찬 [사자후]에 관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8. 이 상처에 [연고]를 바른 다음 거즈로 덮고 붕대로 고정시키세요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9. 찬란한 옥슬잔에 [울창주]가 가득하였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0. 병세가 악화되면서 할머니의 얼굴은 더욱 [수척]해져 갔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1. 없으면 없는 대로, 자기 처지대로, 메 한 그릇과 갯 한 그릇이라도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정결하게 올리면 신명이 가까이 [흠향]하실 것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2. 고사리 같은 손으로 [오밀조밀] 뿔낸 솜씨를 한번 보세요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3. 대감마님, 대전에서 급히 드시라는 [전갈]이 왔습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4. 결혼식 [피로연]은 아래층의 연회실에서 있을 예정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5. 그녀는 못 남학생들의 마음을 [고혹]하여 늘 인기가 많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6. 진주 목사 김시민은 가만히 [척후병]들을 보내어 적의 동정을 살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7. 주택에 [하자]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8. 기저귀 [습진] 때문에 아이가 자주 울어서 연고를 발라 주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9. 등산객들은 여유분의 [양말]을 덧신어 발의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90. 누이동생은 [청상과수]로 늙어 온 자기의 설움을 생각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
※ [ ]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○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91. [殘杯冷○] 보잘것없는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 )
- 주92. [阿○苟容] 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굽. ( )
- 주93. [惹起○端]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킴. ( )
- 주94. [○楔之典] 예전에, 효자·충신·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정문을 세워 주던 특전. ( )
- 주95. [蚌○之爭]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,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 )
- 주96. [故○事端] 일부러 말썽이 될 일을 일으킴. ( )
- 주97. [○粟之文] 일반 사람들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글을 이르는 말. ( )
- 주98. [意氣○沈]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. ( )
- 주99. [賣官○爵]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. ( )
- 주100. [涸○鮒魚]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거나 몹시 고단하고 웅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. ( )

**주관식 II (주101~주150번)**

■ [주관식III]의 답은 별도의 [주관식 II 답안지]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[ ]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‘O’, 적절하지 않으면 ‘X’로 표기하시오.

- 주101. 어머니는 딸이 선물한 머리핀을 [僧梳] 처럼 애지중지 아끼셨다. ( )
- 주102. 입사한 지 일 년이 못 되어서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맡김히 처리하다니 과연 우리 회사의 [樗櫟之材]이다. ( )
- 주103. 영화에서 귀신들이 [蓬頭亂髮]하고 나와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. ( )

- 주104. 그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토록 바라던 [簞食瓢飲]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. ( )

※ [ ]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105. 그는 [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같은] 소식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. ( )
- 주106. 그는 [쥐의 간이나 벌레의 팔]과 같이 변변치 않은 존재일 뿐이다. ( )
- 주107. [눈이 녹으면 없어지는 기러기 발자국처럼] 인생의 자취도 눈 녹듯이 사라지겠지! ( )
- 주108. ‘주역’은 64개의 괘로 [만 가지 무리와 여러 현상]을 설명한다. ( )

※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.

- 주109. 盤根錯節 ( )
- 주110. 攀龍附鳳 ( )
- 주111. 隔靴搔癢 ( )
- 주112. 庖丁解牛 ( )

※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.

- 주113. 泰山鳴動 鼠一匹 ( )
- 주114. 上濁下不淨 ( )
- 주115. 瞬目不函 或喪厥鼻 ( )
- 주116. 他人事 如食冷粥 ( 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  
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也以使無作夫而就其所博是身

- 주117. 勤爲○價之寶 慎○護身之符  
《明心寶鑑》  
( , )
- 주118. 賢者 以○昭昭 ○人昭昭 《孟子》  
( , )
- 주119.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 
○親仁 行有餘力 則○學文 《論語》  
( , )
- 주120. 君之○讀者 故人之糟魄已○ <天道>  
( , 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  
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義少厚節爲産存健待舒乾折習

- 주121. 天行○ 君子以自彊不息 地勢坤 君  
子以○德載物 《周易》  
( , )
- 주122. 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○  
之者疾 用之者○ 則財恒足矣  
《大學》  
( , )
- 주123. 齒以強○ 舌以柔○ 柔能勝剛 弱能  
勝強 《老子》  
( , )
- 주124. 人之性惡 必將○師法然後正 得禮  
○然後治 《荀子》  
( , )

※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[ ] 안의 漢字  
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.

- 주125. [之之子日也如月焉食過君]  
《論語》  
국역: 군자의 잘못은 일식 월식과 같다.  
( )
- 주126. [蔽之一以日言三邪詩思百無]  
《論語》  
국역: 시경 3백 편의 뜻을 한 마디로 대표할 수 있으  
니, '생각에 간사함이 없다'는 것이다.  
( )
- 주127. [己不獸畏而也走知虎] 以爲畏  
狐也 《戰國策》  
국역: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 
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 것이라고 여겼다.  
( )

- 주128. [出恥逮之之者也言不不古躬]  
《論語》  
국역: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은 몸소 실천  
함이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였다.  
( )

※ [ ] 부분을 국역하시오.

- 주129. [罔談彼短 靡恃己長] 《千字文》  
( )
- 주130. [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強天下] 其  
事 好還 《老子》  
( )
- 주131. 嘗以抄啓文臣 入內閣 [大被器賞  
由是 忌疾者衆] 坐兄若鍾獄 流康  
津 十九年 始還 《梅泉野錄》  
( 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<花石亭> - 李珣  
林亭秋已晚 ①소객意無窮  
遠水連天碧 霜楓向日(㉠)  
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 
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

(나) <關雎>  
關關雎鳩 在河之洲  
窈窕淑女 君子好逑  
②參差荇菜 左右流之  
窈窕淑女 寤寐求之  
求之不得 寤寐思服  
悠哉悠哉 輾轉反側

(다) <泣別慈母> - 申師任堂  
慈親㉢暎發在㉣臨瀛 身向長安獨去情  
回首北村時一望 ㉤白雲飛下暮山靑

- 주132. ①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 
( )
- 주133. 문맥과 韻字를 고려할 때, ㉠에 들어갈  
알맞은 漢字(正字)를 쓰시오. ( )
- 주134. ②의 독음을 쓰시오. ( )
- 주135. (나)에서 의성어를 찾아 漢字(正字)로 쓰  
시오. ( )
- 주136. ㉢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- 주137. ㉣이 뜻하는 현재의 지명을 漢字(正字)  
로 쓰시오. ( )
- 주138. ㉤을 국역하시오.  
( 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凡植木之性이 其本欲舒하고 其培欲平하고 其土欲故하고 其築欲密이라 既然已어든 勿動勿慮하고 去不復顧라 其蒔也若子하고 其置也若棄면 則其天者全而其性得矣라 故로 吾不害其長而已요 非有能碩而茂之也라 不抑耗其②實而已이오 非有能蚤而蕃之也라 他植者則不然하니 ㉠根拳而土易하고 其培之也 若不過焉이면 則不及焉이오 苟有能反是者 인댄 則又愛之太恩하고 憂之太勤하여 旦視而暮撫하며 已去而復顧라 甚者는 爪其膚하여 以驗其生枯하며 搖其本하여 以觀其疏密하니 而木之性이 日以離矣라 雖曰 愛之나 其③實害之요 雖曰 憂之나 其實讐之라 故로 不我若也라 吾又何能爲矣哉리오 問者曰 ㉡以子之道로 移之官理可乎아 駝曰 我知種樹而已요 理非吾業也라 然吾居鄉하여 見長人者好煩其令하여 若甚憐焉이로되 而卒以禍라 旦暮에 吏來而呼曰 官命促爾耕하고 勸爾植하며 督爾穫하며 ㉢蚤繰而緒하며 蚤織而縷하며 ㉣字而幼孩하며 遂而鷄豚이라하여 鳴鼓而聚之하고 擊木而召之라 吾小人은 具饗飧以勞吏者라도 且不得暇어늘 又何以蕃吾生而安吾性邪아 故로 病且怠하니 若是即與吾業者로 其亦有類乎인저 問者喜曰 不亦善夫아 吾問養樹라가 得養人術이로다 傳其事하여 以爲官戒也하노라

《古文眞寶》

- 주139. 문맥에 맞게 ㉠과 ㉡의 ‘훈과 음’을 쓰시오. ( )
- 주140. ㉢을 국역하시오. ( )
- 주141. ㉣을 국역하시오. ( )
- 주142. 문맥에 맞게 ㉤의 ‘훈과 음’을 쓰시오. ( )
- 주143. ㉥을 국역하시오. ( )
- 주144. 윗글의 지은이의 성명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屈原이 既放에 游於江潭하여 行吟澤畔할새 顏色憔悴하고 形容枯槁러니 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與아 何故至於斯오 屈原曰 ㉠舉世皆濁어늘 我獨淸하고 衆人皆醉어늘 我獨醒이라 是以見放이로라 漁父曰 聖人은 不㉡응체於物하여 而能與世推移하니 世人皆濁어든 ㉢何不滌其泥而揚其波하며 衆人皆醉어든 何不舖其糟而勸其醪하고 何故深思高㉣舉하여 ㉤自令放爲오 屈原曰 吾聞之하니 新沐者는 必彈冠이오 新浴者는 必振衣라하니 ㉥安能以身之察察로 受物之汶汶者乎아 寧赴湘流하여 葬於江魚之腹中이언정 安能以皓皓之白으로 而蒙世俗之㉦진애乎아 漁父莞爾而笑하고 鼓枻而去하여 乃歌曰 滄浪之水淸兮어든 可以濯吾纓이오 滄浪之水濁兮어든 可以濯吾足이로다 遂去하여 不復與言하니라

《古文眞寶》

- 주145. 문맥에 맞게 ㉠과 ㉡의 ‘훈과 음’을 쓰시오. ( )
- 주146. ㉢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- 주147. ㉣을 국역하시오. ( )
- 주148. ㉤을 국역하시오. ( )
- 주149. ㉥을 국역하시오. ( )
- 주150. ㉦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- 수고하셨습니다 -

합격자 발표: 2022. 3. 17. (목)

결 과 조 회: 홈페이지 (www.hanja114.org) 접속 (성명, 생년월일, 수험번호 필수 기재)



# 제107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1)

## ■ 객관식 ■

1	③	6	②	11	①	16	①	21	④	26	①	31	①	36	②	41	④	46	③
2	①	7	④	12	③	17	③	22	①	27	③	32	④	37	③	42	①	47	④
3	④	8	③	13	④	18	④	23	①	28	④	33	③	38	④	43	②	48	①
4	②	9	①	14	②	19	②	24	③	29	②	34	②	39	②	44	③	49	②
5	①	10	②	15	③	20	④	25	②	30	③	35	④	40	①	45	②	50	③

## ■ 주관식 I ■

주1	주울 척	주21	머무를 두	주41	시노	주61	幌→隍	주81	歆饗
주2	모일 준	주22	어릴/예쁠 눈	주42	경한	주62	燦→饌	주82	奧密稠密
주3	가마솔 확	주23	口	주43	성취	주63	欄→爨	주83	傳喝
주4	흘날릴 양	주24	瓜	주44	춘후	주64	筋→勲	주84	披露宴
주5	무늬 현	주25	川	주45	육계	주65	節→截	주85	蠱惑
주6	두려워할 힐	주26	欠	주46	견척	주66	烽燧臺	주86	斥候兵
주7	어리석을 당	주27	紘	주47	천권	주67	俘虜	주87	瑕疵
주8	바로볼 수	주28	濾	주48	도회	주68	臍帶	주88	濕疹
주9	밥통 완	주29	蓼	주49	천와	주69	耐皺性	주89	洋襪
주10	바람소리 삼	주30	幄	주50	경갈	주70	据置	주90	青孀寡守
주11	새털 창	주31	堞	주51	삼제	주71	醞漿	주91	炙/肴
주12	짐수레 치	주32	嗤	주52	탱거	주72	穢籠	주92	諛
주13	비틀 녘	주33	褪	주53	사릉	주73	造詣	주93	鬧
주14	너 니	주34	漉	주54	접첩	주74	食餌療法	주94	綽
주15	걷는모양 신	주35	畦	주55	표치	주75	草創期	주95	鷓
주16	열 천	주36	忻	주56	저마	주76	撮影	주96	尋
주17	유쾌할 교	주37	窩	주57	陣痛	주77	獅子吼	주97	菽
주18	이에/너 내	주38	聳	주58	鎮痛	주78	軟膏	주98	銷
주19	노 도	주39	脩	주59	插匙	주79	鬱鬯酒	주99	鬻
주20	말이문을나오는모양 틈	주40	淹	주60	澁梯	주80	瘦瘠	주100	轍

# 제107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2)

## ▣ 주관식 II ▣

주101	X	주118	其，使	주135	關關
주102	X	주119	而，以	주136	鶴髮
주103	O	주120	所，夫	주137	江陵
주104	X	주121	健，厚	주138	흰 구름 나는 아래 저무는 산은 푸르다
주105	青天霹靂	주122	爲，舒	주139	㉠: 열매 실, ㉡: 참/실상 실
주106	鼠肝蟲臂	주123	折，存	주140	뿌리는 말리고/구부러지고 혹은 (다른 것으로) 바뀌며
주107	雪泥鴻爪	주124	待，義	주141	그대의 방법을 관청의 다스림에 옮긴다면 관참겠소?
주108	萬彙群象	주125	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	주142	일찍 조
주109	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.	주126	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	주143	너의 아이들을 잘 기르고 너의 닭과 돼지를 잘 키워라
주110	훌륭한 임금을 좇아서 공명을 세움.	주127	虎不知獸畏己而走也	주144	柳宗元
주111	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히 못한 안타까움.	주128	古者 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	주145	㉠: 모두 거, ㉡: 거동 거
주112	신기에 가까운 솜씨나 기술의 묘를 가지고 있음.	주129	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믿지 말라.	주146	凝滯
주113	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.	주130	道로써 인주를 돕는 자는 병력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니	주147	어찌하여 그 진흙을 휘젓고 그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으며,
주114	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.	주131	크게 훌륭한 인물로 인정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가 많았다.	주148	스스로 추방을 당하게 한단 말인가. [스스로 추방 당하였소.]
주115	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.	주132	騷客	주149	어찌 몸의 깨끗함으로 [깨끗한 몸으로] 남의 더러운 것을 받는 단 말인가.
주116	남의 일은 식은 죽 먹듯이 쉽다.	주133	紅	주150	塵埃
주117	無，是	주134	참치행채		